

5. 비

(1) 팔마비- 영동 1번지 소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76호

이 비석은 현재 영동 대한교육보험(구승주군청)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비의 건립배경에 대해서는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고려사』 권34의 열진최석에 기록된 관계사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승평부에서는 태수가 바뀌어 돌아가면 태수에게는 말 8필을 주고 부사에게는 7필을, 그리고 법조에게는 6필을 주되 마음대로 고르게 하였다. 석(碩)이 갈려감에 미쳐서도 읍인들이 말을 바치고 좋은 것 고르기를 청하니 석이 웃으며 말하기를 “능히 서울에만 이르면 죽할 것이어늘 말을 골라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며 집에 돌아간 뒤 그 말들을 되돌려 보내니, 고을사람들이 받지 않으므로 석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 고을에 수령으로 가서 말이 땅아지를 낳은 것을 데리고 온 것도 이는 나의 탐욕이 된다. 그대들이 지금 받지 않는 것은 아마 내가 탐을 내서 길로만 사양하는 줄로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 땅아지까지(모두 9필) 아울러 돌려주니 이로부터 증마(贈馬)의 폐단이 마침내 끊어졌으므로 고을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하였다.

이것이 곧 오늘날까지 순천지역에 널리 알려진 팔마비의 유래이며, 이 비는 한국의 역사상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의 효시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증평지』 ‘고적’의 팔마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재부성외(在府城外) 연자교남로방(燕子橋南路傍) 사건하비면(事見下碑面) 구제최석팔마비(舊題崔碩八馬碑) 정유왜구후비구폐(丁酉倭寇後碑久廢) 정사시중건(丁巳始重建) 대석즉잉기구언(臺石則仍基舊焉) 제일팔마비(題曰八馬碑) 진사원진해필야(進士元振海筆也) 비음기수광찬(碑陰記晬光撰) 김동지현성서야(金同知玄成書也)”라 하였다. 즉 이 비석은 본래 연자교 남쪽 도로변에 ‘최석팔마비’라 하여 세워져 있었고, 최원우(崔元佑)가 부사로 있을 때인 1365년(공민왕 14)경에 처음 중건하였다. 그후 정유재란 때 왜적에 의해 깨진 것을 1617년에 이수광이 다시 중건하였다. 이때 대석은 처음 중건 당시의 것을 그대로 쓰고 그 위에 비석만 다시 세웠다. 팔마비의 이름은 원진해가 쓰고, 이 음기의 비문은 이수광이 지었으며, 글씨는 김현성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팔마비는 이수광이 중건하여 전해오다가 일제 강점기 때 시가지정비계획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0cm, 너비 77.5cm이며 재질은 해석(海石)이다. 대석은 가로 140cm, 세로 85cm, 높이 40cm이다. 비석의 전면에는 팔마비라 양각되어 있으며, 뒷면은 팔마비중건기를 음각한 것인데, 현재 마멸이 심하여 해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비문은 『증평지』에 수록되어 있다.

(2) 임청대비- 옥천동 139번지 소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77호

이 비석은 현재 옥천서원 경현문 우측에 있다. 1565년(명종 20)에 세워진 이 비석 전면의 ‘임청대’ 글씨는 퇴계 이황의 필적이며, 후면에 음각된 글씨는 정소(鄭沼)가 썼다. 비석 세운 일을 맡은 사람은 배숙이었다. 이 비의 건립동기는 비의 뒷면에 새겨 있다. 조위(曹偉)가 순

천에 유배되어 이곳 임청대 부근에서 현지의 사류들과 강론하였는데, 1년 후 김굉필이 다시 순천에 유배되어 오자 동문수학이었던 두 인물이 유배지에서 다시 만나 옛정을 나누며 교류했던 곳이란 점에서 비롯된다. 그뒤 순천부사 이정(李禎 : 1512~1571)이 이를 알고 양현(兩賢)을 추모하기 위해 「임청대기」를 짓고, 이를 비석에 새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석질이 좋지 않아 새기지 못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만을 현 비석의 뒷면에 음각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 비는 원래 현 위치로부터 동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최근에 현 위치로 이전하고 정면 1칸, 측면 1칸의 비각을 세웠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33cm, 너비 99cm, 두께 20cm이다. 대석의 크기는 높이 30cm, 너비 135cm, 두께 50cm이다.

(3) 망북정유지비- 용당동 망북마을 소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

이 비석은 현재 용당동 망북마을 새마을회관 앞에 있다. 이 비석의 전면에 “조선□중신구천군충숙공휘수망북정유지비”라는 기록이 음각되어 있고, 그 원편에 “송정기원후삼신유십월일육세손호남좌도수군절도사동선서각립(崇禎紀元後三辛酉十月日六世孫湖南左道水軍節度使東善書刻立)”이라 새겨져 있다. 이 비석에 음각된 내용으로 보아 이수는 중친으로서 구천군에 봉군되었고 시호가 충숙이며, 그의 6세손인 이동선이 전라좌수사로 이곳 순천에 부임하여 1861년(철종 12) 10월에 비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충평속지』의 기록에는 망북정이 현재 비문의 내용과 상반되게 이수광의 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누정 내용 중 망북정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유적은 이수광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 비의 크기는 높이 130cm, 너비 53.5cm, 두께 28.5cm이다. 대석은 가로 89cm, 세로 63.5cm, 높이 31cm이다. 현재의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1985년에 세운 것이다.

(4) 옥천서원묘정비(玉川書院廟廷碑)- 옥천동 옥천서원 내 소재

옥천서원 내 옥천사 내삼문 앞 우측에 위치한 비석이다. 이 비가 세워진 것은 1760년(영조 36)으로 건립동기는 호남사람 정신의 기지(基址)로서 옥천서원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전자(篆字)는 당시 옥천서원의 원장이던 유탁기(兪拓基)가 쓰고 비문은 김원행(金元行)이 지은 것이며, 글씨는 홍봉조(洪鳳祚)가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78cm, 너비 80cm, 두께 22.5cm이다. 용대석은 가로 120cm, 세로 40cm, 높이 30cm이다. 용대석 아랫부분에는 2단의 하대 저석(低石)을 표시하고 그 위에 하대 중석(中石)을 표시하였다. 여기에 탕주와 우주를 표시하였으며, 그 위에 다시 하대 갑석(甲石)을 표시하고 그 위에 복련(覆蓮)을 양각하였다. 가담석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가칭석의 하부에는 2단의 받침을 표시하고 그 위에 당초문을 양각하였으며, 이 당초문 위에 용두(龍頭)를 양각하였다.

(5) 시 제2청사 내 공적비군(功績碑群)- 승주읍 평중리 산55-1번지 소재

구승주군청 정문 입구의 좌측 도로변에 7기의 공적비가 있는데, 이 비석들은 원래 통합 이전의 순천시내(구승주군청 내)에 있던 것들을 1983년 당시 군청이 현 위치로 이전됨에 따라 함께 옮겨놓은 것이다. 이들 7기의 내용을 보면 선정비 3기, 불망비 3기, 유애비 1기이다. 그 가운데 건립연도 판독이 가능한 것은 4기이며, 3기는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

이다. 그러나 이 중 흥득후유애비는 『충평속지』에 기록이 남아 있어 확인할 수가 있으나 나머지 2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것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cm)

비 명	건립연도	높 이	너 비	두께	비 고
부사이정선정비(府使李禎善政碑)	1567	124	57	20	옥개석 유실
흥득후유애비(洪得厚遺愛碑)	1740	146	57	19	
영장정공우식청덕불망비 (營將鄭公愚植淸德不忘碑)	1879	157	59	17	
부사서후정순청덕홀민영세불망비 (府使徐候正淳淸德恤民永世不忘碑)	1879	173	67	19	
암행어사이공면상영세불망비 (暗行御史李公冕相永世不忘碑)	1891	163	54	21	1898~1899 (재임기간)
군수윤후성구청덕선정비 (郡守尹候成求淸德善政碑)	?	159	57	18	
영장이공장렬청덕선정비 (營將李公章烈淸德善政碑)	?	153	53	25	

(6) 순천향교 내 공적비군

금곡동 향교 내에는 근래에 세운 공적비 1기를 제외한 총 14기의 비석이 있다. 이들 14기의 현황을 보면 선정비 3기, 불망비 3기, 흥학비 2기, 기타 2기, 나머지는 비명 판독이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이들 중 건립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3기에 불과하여 참고로 『충평속지』에 수록된 그들의 재임기간을 비교란에 기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cm)

비 명	건립연도	높 이	너 비	두께	비 고
강후복성청덕비(康候復誠淸德碑)	?	111	48	17	1619~1621
현감이덕수선정비(縣監李德洙善政碑)	?	103	55	16	1624~1628
부사이후익공인덕선정비 (府使李候益恭仁德善政碑)	?	142	68	17	1679~1681
연자교중창비(燕子橋重創碑)	1696(?)	150	62	16	
부사김종일흥학비(府使金宗一興學碑)	1703	170	71	23	1647~1649
부사황익재흥학비(府使黃翼再興學碑)	?	173	73	22	1716~1718
부사이후혜조영세불망비 (府使李候惠祚永世不忘碑)	?	134	47	19	1782~1784
부사이후종병홀민성덕불망비 (府使李候宗秉恤民盛德不忘碑)	1845	135	53	15	1844~1845
부사이후승익영세불망비 (府使李候承益永世不忘碑)	1859	160	60	17	1857~1858
유후영순선정비(柳候永詢善政碑)	?	123	56	17	1610~1611

이밖에도 순천의 유교유적으로서 전라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낙안객사(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70호), 임경업군수선정비각(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7호), 장명석등(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7호), 상호정석등(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50호) 등이 있다.

참고자료

- 허지도서』.
증보문헌비고』.
친증동국여지승람』.
유형원, 『동국여지지』.
이수광, 『증평지』.
김정태, 『증평속지』, 1923.
김정호, 『태동지지』.
강효석, 『천고대방』, 1924.
『순천·승주향토지』, 순천문화원, 1975.
순천시, 『대고장전통가꾸기』, 1982.
내고장 승주의 얼 편찬위원회, 『대고장 승주의 얼』, 1983.
승주군사편찬위원회, 『승주군사』, 1985.
『탁안읍지』, 1901.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탐도문화연구』 창간호, 1985.
전라남도, 『문화유적총람』, 1986.
한림대 태동고전문화연구소, 『태동고전문화연구』상, 1987.
전라남도, 『천남의 향교』, 1987.
전라남도, 『천남의 서원·사우』 I·II, 1988·1989.
승주문화원, 『승주문헌해설집』, 1988.
김동수, 『누정 관계자료—순천·승주지역』, 『호남문화연구』 제16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6.